

News

우리금융, 바젤III 대비 리스크관리 능력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바젤III 규제 개편안을 반영한 3대 리스크(운영·시장·신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 바젤III 규제 요건에 대비한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달 운영 및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했다.

금감원 '철저한 관리' 지시에 전세·주담대 조이기 나선 은행

아시아경제

금감원은 전날 오후 일부 시중은행을 개별 소집해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현황 점검 및 관리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올해 전세대출과 주담대 급증. 19일 기준 5대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109.9조로 지난해 말 보다 4.69조원 증가. 동 기간 주담대 잔액도 482.3조로 지난해 대비 8조4989억원 증가

금융당국 'LH사태' 여파에 가계부채관리방안 4월로 연기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발표 시점을 4월로 미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 때문. 금융위는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거 연임...美 ISS "신한·우리 결정에 반대"

조선비즈

4대 금융지주의 정기주주총회가 오는 25일, 26일 진행. 그런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 ISS가 최근 신한·우리금융지주의 사내·외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무더기 반대'를 권고 두 지주회사는 외국인 주주 의결권과 관련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실손-중신-車보험료 줄줄이 '쑥'... 인상요인 남아 더 오를 가능성

동아일보

올 1분기(1~3월) 중 실손보험은 회사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20%, 차보험은 같은 기간 2%가량 올랐다. 보장성보험도 지난해 말보다 7~13%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병원, 자동차 이용량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앞으로 다시 악화될 수 있다.

미래에셋, 공정위와 소송전... 내달 21일 첫 공판

디지털타임스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이 내달 개시된다.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91억원을 부과. 당초 검찰고발 조치까지 예상했으나 시정 명령에 그쳤다.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활동계좌 4000만개 돌파

동아일보

최근 주식 투자 열풍 속에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만 개를 돌파.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된 증권 계좌. 이달 19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4007만개. 지난해 3월 6일 처음으로 3000만 개를 넘어선 뒤 약 1년 만에 1000만 개의 계좌가 늘었다. 올해 들어 늘어난 계좌만 500만

마이데이터 2차전 임박... `속타는` 카카오페이, 금융당국 "조만간 결론"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위한 2차 심사 준비에 돌입하면서 신규 사업자를 포함해 80개가 넘는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든 전망. 카카오페이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사실상 2대 주주인 중국 앵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서류를 금융당국이 확인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된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